

제 21 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짜 대한민국」 70년 민주정부계승위원회 보도자료」

2025 년 5 월 13 일 (화) 오후 3 시 | 당사 5 층 세미나실

[사진] 출범식 단체 기념 촬영



■ 보도자료 개요

더불어민주당은 2025 년 5 월 13 일 당사에서 「진짜 대한민국」 70 년 민주정부계승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민주정부 70 년의 정통성과 가치를 계승하는 대선 승리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번 위원회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 3 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 임명하였으며, 과거의 계승을 넘어 미래로 가는 실천적 모습으로 출범하였다.

1. 민주정부 3 기 핵심 인사 공동위원장 위촉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민주정부 3 기를 상징하는 핵심 인사들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정통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배기선: 김대중재단 상임이사 / 사무총장, 제 14·16·17 대 국회의원

－ 이병완: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 노무현재단 이사장

－ 노영민: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 제 17·18·19 대 국회

이들은 민주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주권 회복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바탕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집중, 공략하는 필승 전략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며, 신문식(전국회의원), 윤승용(노무현 정부 홍보수석), 김거성(문재인 정부 시민사회수석) 등이 공동수석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출범 선언의 핵심 메시지

공동위원장 3인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기념이 아닌, 현 시점에서 내란적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를 여는 실천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언론 장악, 역사 왜곡, 민생 포기” 등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밝혔다.

3. 이재명 후보의 역할과 민주정부 계승

공동위원장들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정권의 계엄 기도와 내란적 국정 운영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민주주의를 지킨 중심 인물임을 천명하였다. 그의 출마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정부 70년 전통의 실질적 계승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정통 계보의 연장선으로 규정된다.

4. 결의와 향후 계획

공동위원장들은 “계승은 기념이 아닌 실천이다”라는 구호 아래,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과 민주질서 회복을 위한 역사적 투쟁으로 규정하고 전국 단위의 조직화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였다.

“역사, 진실, 국민이 우리 편이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반드시 승리하자”는 결의로 마무리되었고 오는 5월 21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민주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지선언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